

소련

체르노빌發電所의 터빈停止試驗 다른 RBMK型 發電所에서 拒否

소련을 방문하고 귀국한 佛EDF의 장크·르쿠레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소련 당국자가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행한 터빈정지시험은 다른 RBMK爐에서는 이전에 거부받고 있던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同 副總裁가 코바렌코 체르노빌 국제문제 담당 국장의 얘기로써 전한 바에 의하면,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행한 터빈정지시험은 이전에 다른 RBMK型爐인 Leningrad, Kursk,

Smolensk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시가 제안되었으나, 이들 발전소 책임자는 이 시험의 성과를 얻기 위해 원자로 보호회로를 운전중에 정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은 매우 위험을 수반한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의 책임자는 운전실적이 호조였기 때문에 다른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자기 발전소 쪽이 낫다고 생각하여 시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인도

蘇聯과의 플레트供給契約締結 臨迫

蘇聯과 印度는 蘇聯의 440MWe級 VVER型 PWR 2基의 印度로의 輸出契約을 곧 締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報道된 바에 의하면 兩國間의 最近의 協商에서 이 去來에 障礙가 되었던 많은 問題들이 解決되었다고 한다.

印度의 科學者들로 構成된 한 高位諮問委員會는 長期間 繫留돼왔던 蘇聯의 原子力플레트 오퍼를 받아들이기 위해 印度가 提示 해야할 前提條件을 檢討하도록 간디首相이 要求한데 대한 建議書를 곧 提出할 것이라고 하며, 이 建議書에는 다음 事項들이 讓步할 수 없는 主要事項으로 提示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印度가 核非擴散條約에 加入해야 한다는 附帶條件이 없을 것(이것은 오래前부터 拒否돼 왔다); 燃料供給의 中斷이 絕對없을 것이라는 保障을 蘇聯側으로 부터 받을

것(이러한 일이 美國이 建設한 Tarapur 플레트에서 일어났었다); 原子爐容量을 1000MWe보다 小型의 440MWe級을 供給할 것(蘇聯은 VVER型에 대해서는 1000MWe보다 小型의 原子爐를 生産할 생각이 없으나 印度의 電力系統이 1000MWe 유닛를 收容할 수 없게 돼있다) 등.

兩國은 安全保障措置에 대한 協定을 協商中인데 이 協定은 폴·스콕프가 아닌 이 供給契約에 의해 實際供給되는 設備에만 適用하게 돼있다. 따라서 印度는 核非擴散條約 테두리밖에서 任意로 獨自的인 原子力프로그램을 追求할 수 있다. 印度는 技術上의 어려움때문에 計劃이 遲延되고 있지만 現水準인 1200MWe에서 今世紀末까지 設備容量을 急速히 擴張시켜 갈 計劃이다.

이 安全保障措置協定은 印度自體의 原子力프